

한국구강보건협회

- 정기총회 성료

한국구강보건협회(회장 김주환)는
제 27차 정기총회를
지난 11일 프라자 호텔에서 개최했다.

정달수 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정기총회 장면

이날 총회는 전년도 결산 및 회무보고를 승인하고 특별회비 1억 8백여만원, 일반회비 2천 5백 여만원 등 전년보다 1천여만원이 증가된 1억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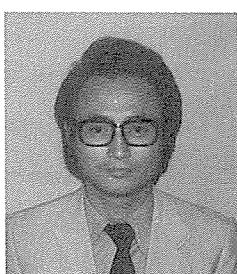
천 9백 84만 5천원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사업계획에 있어서장애인 및 소년소녀 가장 치과 치료사업, 학교 순회구강보건 교육실시, 글짓기, 표어, 포스터 공모전 개최, 회보 발간 사업 등 예년과 별차이 없이 확정 했다.

금년부터는 정식활동에 들어갈 치아건강식품 위원회 주관으로 치아건강식품 보급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정관변경에서는 제 4장 사업부분에 장애인에 대한 구강검진에 관한 사항과 치아건강식품 보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 사업추진이 전국시도지부와 상호협력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부장회의를 신설했다.

대한치과 이식학회 -춘계학술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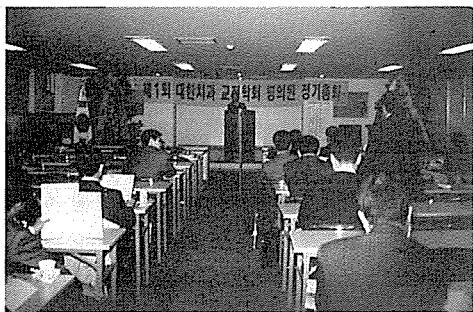


대한치과이식(임프란트)학회(회장 최광철)는 지난 2월 28일 앰버서더 호텔에서 회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춘계학술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회장 최 광 철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최효영(한양의대 치의학교실) 교수의 「경조직 대치물에 대한 생체골 반응의 전자현미경적 연구」, 경희치대 보철과 최대균 교수의 「IMZ 임프란트의 보철」 등 4연제의 특강이 진행됐다.

대한치과교정학회 - 첫 평의원 총회 성료 -



평의원 총회 장면

대한치과교정학회(회장 장영일)는 지난 7일 오후 치협 3층 강당에서 제 1 회 평의원 정기총회 및 사무실 입주식을 거행했다.

평의원 60명 중 34명이 참석한 첫 평의원 정기총회에서는 인정의제도에 대한 규정안을 통과시키는 한편 회비 인상안을 승인하였다.

이날 있은 인정의 제도의 규정안에 따르면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의 수련을 받아야 하며 수련기관에는 5년 이상 학회회원으로 학회에서 인정하는 교육지도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인정의 제도 시행 이전에 교정과 전공의 수료자는 수련을 마친 것으로 인정하며, 전공 과정을 이수한 회원은 본 규정에 따라 인정의가 배출될 때까지 본학회 3년 이상 회원인 경우 치과교정치료 치협례 구증례를 제출, 심사받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회비 인상이 있었으며, 95년도 예산 1억 6천여만원을 통과시켰다.

또한 95년도 사업계획으로 제2회 아시아 태평

양 교정학술대회 및 28회 학술대회와 제14회 전공의 학술대회, 학회 소식지 발간 등을 통과시켰다.

고려대 골유착성 임프란트 심포지움 성황



개회식 장면

고려의대 치의학 교실의 「고려대 임프란트 연구회」는 지난 12일 고려대 인촌 기념관 강당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5년도 골유착성 임프란트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오전 9시 30분 개회식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 는 신상완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고려대 의무부 총장, 서규원 교수, 김영수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어 진행된 심포지움에서는 「골유착성 임프란트의 성공과 실패」라는 주제로 서울치대 고재승 교수의 「임프란트에 대한 골조직 및 연조직 반응」 등 7개의 소주제 강연 및 토론이 있었다.

또 행사장 앞에서는 9개의 업체가 참가한 기자재 전시도 있었다.

서울치대 교수발령

서울대학교 치과대학(학장 이종흔)은 지난 3월 1일자로 구강악안면외과의 정필훈 조교수를 부교수로 승진 발령하는 한편 95년도 1학기 외래강사 121명을 임명했다.

95년도 1학기 서울치대 외래강사로는 교수대우 2명, 부교수대우 3명, 조교수대우 18명, 재임강사대우 98명 등 총 102명에 이른다.

연세치대 승진 및 신규교원 발령

연세대학교 치과대학(학장 이의웅)은 3월 1일자로 일부 교수를 승진 및 신규교원 임용 발령하였으며 외래교수를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연세치대는 외래교수로는 신규 32명을 포함한 총 2백 25명을 임명, 지난해보다 29명을 증원했다.

이번 인사이동 명단은 다음과 같다.

부교수→교수 : 박창서, 이승일, 이찬영

조교수→부교수 : 이원유, 박광호

전임강사→조교수 : 강우진, 김경호, 최성호

〈신규 교원〉

구강생물학 : 권호근(조교수),

서정택(전임강사 9월 1일)

소아치과 : 최형준(전임강사)

울치대에서 개최하고 수련기관의 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하는 한편 (가칭)치의학회 구성에 합의했다. 치의학회(가칭)는 10개 분과학회장과 학회파견 대표 1인으로 구성되는 분과학회 협의체로서 분과학회의 학술활동을 지원하며 전문의 수련교육의 표준화와 제도시행의 실질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서울치대병원 구강진단과

국내 최초로 물리치료사 고용

서울치대 구강진단과(과장 김영구)에서는 국내 최초로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악안면동통환자들의 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서울치대 구강진단과에서는 『만성동통환자 치료는 교합장치 치료, 물리치료, 운동요법, 약물치료 등으로 이루어지고 초음파, 갈바닉전기자극 등과 같은 물리치료기의 도움과 자세교정 등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훈련을 받은 물리치료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한다.

이미 10여년전부터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의 임상심리학자의 도움으로 환자치료를 해 왔으나 환자진료에 좀 더 효율성을 더하기 위하여 물리치료사를 고용했다고 밝혔다.

공직지부 워크샵

공직지부(회장 김수경)는 「전문의 수련교육과 치의학 발전을 위한 워크샵」을 지난달 24일 서

송정동 협회 회관 연락처

주소 :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81-7(우 133-160)

전화 : 치협 사무처 498-6320~6

FAX : 치협 사무처 468-4655